

# 지방금융, 3분기 실적 맑음... '부동산 PF 구름' 걷히나

3대 지방금융 순익 전망치 합산액 전년동기비 5.9% 증가한 5153억  
총당금 부담 줄고 이자이익 늘어  
주담대 막차수요 흡수, 성장 기여  
부동산PF 정상화 따라 4분기 기대



DGB금융은 3분기 실적에서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DGB금융이 위치한 대구 iM뱅크 제2본점. /DGB금융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일제히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에 악영향을 줬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여파가 일부 잦아들면서 총당금 부담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올 3분기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총 51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866억원 대비 5.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주사별로는DGB금융이 1230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돼 전년 대비 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BNK금융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2168억원, JB금융이 전년 대비 4.9% 성장한 1755억원의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잦아들면서 각 지방금융의 손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총당금 부담이 빠르게 감소한 영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증가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 고강도 총당금 적립을 압박했다. 고위험 PF 대출인 브릿지론(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고금리 대출) 취급이 잦았던 지방금융의 대손충당금 부담은 빠르게 상승했다.

각 금융지주사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의 총당금 적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7% (3730억원) 증가한 1조940억원까지 늘

었다. 반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총당금 전입액은 같은 기간 24.5%(1조1700억원) 감소한 3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각 지방금융이 지난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 올 3분기 들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며 부동산 PF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총당금 부담이 빠르게 줄었다.

특히나 지난 2분기 말 기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760억원의 총당금을 적립했던 DGB금융의 익스포저가 일부 해소되면서, 일각에서는 3분기 및 4분기에 총당금의 환입(총당금 필요가

해소됐을 때 해당 차액을 당기 수익으로 포함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요를 지방은행이 흡수한 것 또한 3대 지방금융의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에 따라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막차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렸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지방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에도 기대가 모인다.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지방금융들이 이자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에 따른 총당금 부담에 실적이 다소 주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부동산 PF 여파가 일부 해소된 만큼 하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신한카드

## 신한카드 어린이 초대 문화행사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신한카드가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어린이를 초대해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신한카드는 '제23회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올해 2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까지 약 19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카드업계 최장수 문화행사다. 이날 참가한 어린이들은 '행복한 우리 가족의 미래', '즐거운 우리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응모 작품은 한국미술협회 전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등 총 39개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특별 상금을 전달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미래 세대의 꿈과 상상력을 응원하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카드 CU 신상품 6종 할인 GS25 고피자 51% ↓

우리카드가 '중앙해장'과 협업을 통해 CU 신상품 6종을 할인한다.

우리카드는 샐러드와 커피, 김장김치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중앙해장'과 콜라보한 신상품 6종과 인기 컵라면 13종을 30% 할인한다. 중앙해장 콜라보 신상품 6종은 ▲양해장국밥 ▲우동참볶음 ▲전골볶음밥 ▲양지곰탕밥 ▲우양지수육 ▲해장라면 등으로 구성했다.

GS25는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와 협업했다. 우리카드로 결제 시 전 메뉴 51%를 절감할 수 있다. 미트 치즈피자와 포테이토 베이컨 피자를 387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커피 전품목 5000원 이상 우리카드 결제 시 30% 할인을 제공한다. 음료, 원집, 파우치, 스틱커피 등 포함되며 노브랜드 및 즉석커피 상품은 행사 상품에서 제외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유명 식당부터 프랜차이즈, 김장김치, 커피까지 모두 해결되는 편의점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지난달 서울 청약경쟁률 396.8대 1 '역대 최고'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서울' 소재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월간 기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역 브랜드 단지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려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의 '2024년 9월 청약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직방이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족 수용 여부와 계약금 마련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85㎡ 초과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투시도. /현대건설

는 511대 1, 60㎡이하는 29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9월 서울에서는 총 4개 단지가 공급됐다. 이 중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의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5.6대 1로 37세대 공급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면적별로는 60㎡이하가 1205.2대 1로 경쟁률이 높았다.

분상제가 적용돼 인근에 위치한 레

미안대치팰리스의 비슷한 평형 매물과 비교해 약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다. 거주유무기간 2년, 전매제한 3년 등이 적용됨에도 수요자들이 몰렸다.

강남구 '청담르엘'도 경쟁률이 치열했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한 단지로 역시 주변의 청담자이 등에 비해 10억원 이상 낮게 책정된 분양가에 관심이 높았다. 청담역 역세권, 한강변에 위치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5세대 분양에 나선 결과 총 5만 6717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66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 748.5대 1, 전용 84㎡가 5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노원구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가 30.3대 1, 마포구 '마포에피트어바닉'이 10.1대 1로 뒤를 이었다. 모두 중소형 면적대로 공급됐으나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작용해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청약단지 중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서울 소재 단지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청담르엘 뿐만 아니라 래미안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등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역 내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와 "아크로리츠카운티" 래미안원펜타스 등이 연내 분양 계획 중이다"라며 "청약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당분간 청약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신한은행-카뱅, 외환사업·자금시장 경쟁력 강화 맞손

FX트레이딩 거래 포괄적 업무협력

신한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ATM을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레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방식 외환(FX)트레이딩 거래 관련 포괄적 업무 협력도 함께 체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혁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행의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은행-카카오뱅크 전략적 제휴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김광수 고객솔루션 그룹장(왼쪽)과 카카오뱅크 이형주 최고비즈니스책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